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새기고 일해나가자

성과의 비결 - 혁신적 복무정신

김정숙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김정숙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을 선착적인 문제로 봄어들여 조직적 정성을 강화하고 조직적 사력을 짜고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정을 인민에게 충족시킬 때 일관시켜나갈 때 대한 당의 솔직한 뜻을 높이 달고 당사업방법과 작품을 개선하기 위한 편파량을 일으켜나가는 바람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침범 인민의 흥복이되어야 한다.』

이곳 군당위원회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군을 사회주의 선진으로 훌륭히 꾸려는데서 틀어민은 있다. 인민에 대한 친선과 복무정신이다.

군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면 지난해의 실현된 성과가 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초 군소재지를 통제로 일신시킬 때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활강하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군당책임일군은 어려운 단위를 둘러 진실점령을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 일부 단위들에서 진실속도에만 치중하면서 단총살립짐내부미장과 총마공사의 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의 복무방법이 투철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김정숙군당위원장은 즉시 살립짐내부미장과는 정직하고 있는 현장에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군기기관 일군들의 모임을 열었다.

현장에서 군당책임일군은 나타난 결함의 원인을 분석해주고 즉시 잘못을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를 맡은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진실점령의 질을 훌륭히 개진할 수 있도록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위해 혁신적으로 복무하는데서 보장하였는가를 놓고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일군들의 인민관은 새롭게 왔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김정숙군에는 모래원천이 부족하다. 제일 가까운 모래채취장까지는 10여미터 되며 그나마도

선시하는 문제였다.

어느 날 환경판단에 따른 병원에 나갔던 군당책임일군은 수술실과 세면장과 비용하여 여러 곳들이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권리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공사를 책임진 일군을 만난 군당책임일군은 무엇을 하나 설계하고 건설해도 인민들에게 편리하겠다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주었다.

특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정대와 함께 얼어붙은 강기술을 깨내고 모래를 한참 두루 퍼담았다. 그리고 전진장까지 부지런히 날랐다. 군금기관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무슨 일을 하나 조직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것을 당사자의 기본으로 들어놓고 어김없이 수행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위해 혁신적으로 복무하는데서 보장하였는가를 놓고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일군들의 인민관은 새롭게 왔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김정숙군에는 모래원천이 부족하다. 제일 가까운 모래채취장까지는 10여미터 되며 그나마도

수천m³의 모래가 확보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인민들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할 글은 결의를 다지었다.

대중의 양양원 열의는 지난 시기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거적을 남았다.

온 군에 혁신의 기상이 새차게 나왔다. 단 몇 달 만에 100여동에 300여세대의 단층살립짐과 소총아파트들이 새로 일어서거나 개진보수되었고 수천m³의 도로로 장봉사가 성과자로 전행되었다. 김길성화기 김정일화온실과 풍어사업소가 몇 들어지게 진설된장을 비롯하여 군에 계획하였던 방대한 진설목표가 어김없이 수행되게 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위해 혁신적으로 복무하는데서 보장하였는가를 놓고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일군들의 인민관은 새롭게 왔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김정숙군에는 모래원천이 부족하다. 제일 가까운 모래채취장까지는 10여미터 되며 그나마도

장진강을 건너야 하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설비를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였다.

해마다 낸 예산에 공통순회우승을 기록하지 않고 하였다.

결국 군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도는 강이 얼어붙은 겨울철에 얼음으로 수송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겨울에 필요로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온 군에 혁신의 기상이 새차게 나왔다. 단 몇 달 만에 100여동에 300여세대의 단층살립짐과 소총아파트들이 새로 일어서거나 개진보수되었고 수천m³의 도로로 장봉사가 성과자로 전행되었다. 김길성화기 김정일화온실과 풍어사업소가 몇 들어지게 진설된장을 비롯하여 군에 계획하였던 방대한 진설목표가 어김없이 수행되게 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위해 혁신적으로 복무하는데서 보장하였는가를 놓고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일군들의 인민관은 새롭게 왔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김정숙군에는 모래원천이 부족하다. 제일 가까운 모래채취장까지는 10여미터 되며 그나마도

해주화학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해주화학공장은 도적으로 일이 잘되는 단위들 중 하나이다.

해마다 낸 예산에 공통순회우승을 기록하지 않고 하였다.

대중의 양양원 열의는 지난 시기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거적을 남았다.

온 군에 혁신의 기상이 새차게 나왔다. 단 몇 달 만에 100여동에 300여세대의 단층살립짐과 소총아파트들이 새로 일어서거나 개진보수되었고 수천m³의 도로로 장봉사가 성과자로 전행되었다. 김길성화기 김정일화온실과 풍어사업소가 몇 들어지게 진설된장을 비롯하여 군에 계획하였던 방대한 진설목표가 어김없이 수행되게 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안하고 사망한 땅이나 대중의 힘을 키우고 밤동시킬 줄 아는 일군이야 말로 헌신적 복무정신을 체질화 한 인민의 일군들도 모두 운반기차를 끌고 따라나섰다.

이렇게 되어 군인인 병원은 훌륭히 개진되었으며 열마후에는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미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석탄생산을 더욱 늘이자

최근 개천지구탄광원 합기업
소에서 매달 높아진 석탄생산계
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운 물론 자체, 무
속물 등의 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성과를 이루는 비결은
여기에는 있는가?

그에 대하여 이곳 일군들과
단부들은 한결같이 자력자강의
정신이 알아온 것이라고 대답하
고 있다.

그렇다. 누구든 개천지구의
어느 탄광에 가보아도 좋다.
그리면 분명히 꾸려진 자력갱
생기지들에서 많은 땅의 부족
증, 소공구는 물론 차량, 차세
기, 삽도, 사출분야 등 석탄
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기
계, 설비들이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제질화한
현장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
단부들은 차량의 차세기, 차
로, 단부를 파악하고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끊고
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
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루할수
있습니다.』

우체초 현장기업소당, 행정일
군들의 진급법의 회가 어느 한
탄광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각 탄광들에 꾸려진
자력갱생기지들의 물질
기술적 도래를 더욱 강화하여
현장기업소자체의 힘으로 석
탄생산의 둘파구를 열어나갈

데 대한 문제가 다시금 강조
되었다.

즉시에 모든 일군들이 각 탄
광의 현장들에 전투조직을 정
했다. 그들은 화선지휘원의 차
세로 둘파구를 전투장마다에서
생산자대 중과 함께 현선의 구
체물을 흘리며 석탄생산의 품
질, 소공구는 물론 차량, 차세
기, 삽도, 사출분야 등 석탄
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기
계, 설비들이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제질화한
현장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
단부들은 차량의 차세기, 차
로, 단부를 파악하고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기계와 설비는 물론 차세기, 무
속물 등 차량의 힘과 기술로 부족
적으로 만들수 있는 방도를 실
현후에는 찾았나갔다. 때로는
직접 설계원, 제작자가 되어
도면과 기대대로 탐구와 열정
에 떨쳐나섰다.

첫날부터 운반장에서는 철야
전투가 빙어졌다.

차세기의 힘과 기술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없는 것은 만들
어냈다.

전동기부분을 제작을 위해 새
롭게 만들어낸 지구, 장비만도
수십 가지.

이미 미연회 높은 생산도태가
온을 느꼈다.

그런데 전동기의 중요부분을
들을 가공해낸 설비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제품의 질보
장과 직접적인 문제였다.

우리의 푸른은 말들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의 사업이 아니다.

차세기의 힘과 기술로 보다 훌륭
한 차기의 것을 창조하는 비약과
혁신이다.

이러한 일념밑에 일군들은 즉
시 길을 떠났다. 웃거워 유풍한
설비를 앞세우고 전투하고 들판
에서는 그들의 얼굴마다 푸른
땀이 흘러내렸다.

탄광일군들이 험준한 힘에 부친것이
었다.

하지만 일군들과 기술자, 단부
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설비
와 부속물들이 보장되기를 않아
기다리느냐, 힘써워도 계속으로

제 힘을 믿으면 생산활성화의 길이 열린다

개천지구탄광원 합기업소에서

부분들을 만들어쓰는 차세기
의 퀄을 걸느냐 하는 물음앞
에 모두의 실정은 이렇게 세차
게 고동쳤다.

자력갱생으로 석탄생산의 품
질과 둘파구를 열었다.

이미 한 걸자의 각오인 용
기 때때하여 산악같이 떨쳐나
섰다.

첫날부터 운반장에서는 철야
전투가 빙어졌다.

차세기의 힘과 기술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없는 것은 만들
어냈다.

전동기부분을 제작을 위해 새
롭게 만들어낸 지구, 장비만도
수십 가지.

이미 미연회 높은 생산도태가
온을 느꼈다.

그런데 전동기의 중요부분을
들을 가공해낸 설비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제품의 질보
장과 직접적인 문제였다.

우리의 푸른은 말들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의 사업이 아니다.

차세기의 힘과 기술로 보다 훌륭
한 차기의 것을 창조하는 비약과
혁신이다.

이러한 일념밑에 일군들은 즉
시 길을 떠났다. 웃거워 유풍한
설비를 앞세우고 전투하고 들판
에서는 그들의 얼굴마다 푸른
땀이 흘러내렸다.

탄광일군들이 험준한 힘에 부친것이
었다.

하지만 일군들과 기술자, 단부
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설비
와 부속물들이 보장되기를 않아
기다리느냐, 힘써워도 계속으로

로 이어져며 혁신적인 두동을
벌리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보
다 큰 용기를 얻은 로동자들은
불과 면밀한 설비를 정상가
동시에 부분들의 질을 훨씬 높
여나갔다.

이 나날 조양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로 고심어린 푸구와
노력을 통해 전공활침기기를 차세의
기술로 만들어내어 회전자의 질
면 금수를 결정적으로 높이었
다. 결과와 성능이 높은 전동기를
내놓게 되었다.

드디어 전동기가 설치에 설치
되어 세부원은 탄차들을 힘
차게 끌어내기 시작했다.

순간도 맡보를 모로는 탄광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기
지에서 새롭게 탄차를 구조성능
을 짐작해나갔다.

생산조건을 보강하자면 통
증기들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
였다.

『정말 놀랐다. 이런 기계를
까지 차세로 해결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
와보니 물질기술적도를 더욱
높여야겠다는 결심이
걸어졌다.』

이것은 엄마인 자강도 광금
광에서 전동기부분을 제작한
기술자들이 차세로 힘차게
나섰다.

지난 시기 탄광앞에서는
수많은 기술적파제들을 펼친
일군들의 진실의 토로이다. 그
들은 공무직장, 운반장, 공급사
점과 같은 차세를 통해 더욱
높여야겠다는 결심이
걸어졌다.

이제는 차세로 힘차게
나섰다.

그들이 차세로 힘차게 나섰다.

이제는 차세로 힘차게 나섰다.

조국해방전쟁의 3년간.
그것은 공화국의 70년 역사
에서 짧은 한토막이다.

그러나 그 3년으로 하여 세
상사람들은 영웅조선, 영웅인민
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조국은
영웅의 나라로 통망일각에 거연
히 솟아올랐다.

승리가 얼마나 값비싸며 조국
이 얼마나 키운 환사를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이 땅에
피고서 아로세거려 전화의 영웅
들, 그들의 고귀한 냄새는 오늘날
천안의 심장속에 깊어온 삶의
메아리이며 윤리적이다.

위 대 철 정 명 도 자
길 정 일 풍 치 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밝혀
한 무비의 대중적영웅중주』로
하여 우리 민민은 세계인민을
로부터 영웅적인민으로 불리
우게 되었습니다.』

가령지칠없던 전쟁의 나날
에 수백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었
다. 항일투사들은 일었던 조국
을 찾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

았다면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
군용사들은 조국을 수호하고 해
방된 우리 민민의 영웅적기개를
은 세상에 폐기하는데 커다란 공
헌을 하였다.

공화국이 낳은 전화의 영웅
들, 조국해방전쟁에서 벌써빛 빛
나는 영웅들을에는 물로 희
구를 막은 영예와 영웅도 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
직회구를 가슴으로 막아 주문대
의 돌격포를 일어놓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 최상된 장례
영웅의 품에는 전투를 앞두고
고향의 어머니에게 쓴 이런 편

얼마만 우미가 찾았던 평안북
도민거리재자동차사업소는
그리 코지 않은 단위였다.

그러나 사업소를 들어보면 말
아인은 깊은 창으로 끊겼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가
훌륭히 실현된 정보화모범단
위, 운송과 양어장, 축산을 비롯
한 후방도대가 그려나온 추구에
맞춰온 일터... 이것이

사업소를 찾은 사람마다 이구동
성으로 하는 이인기 티스는 우
리가 느낀 소감이기도 했다.

경 애 하는 최고병 도 자
길 정 운 풍 치 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
한 투쟁에서 자강제일주를
철저히 구현해야나아 학

니다.』

미온지비인의 안내를 받으
며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사업
소의 기업경영활동을 통합지휘
하는 어느 한 사무실이었다.

사업소에서는 이미제부에 계
획작성, 수주조직 및 지휘, 기술
발전, 조동행정, 제정활동 등 모
든 사업조직을 구내에 축구장을
부터 당하고 진행하고 있었
다. 더욱 기우주목되는 것은 자체로
제작한 운행시스템으로 그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과 함께 그는
운행 중에 있는 모든 차량을 대신하여 이
렇게 북적였다. 그가 정
신을 차렸을 때 또 한데의 저당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전화의 영웅들의 불

그렇게 조국의 산야에 더욱
피 뿌리며 승리의 환치환치를
앞당긴 유명무명의 영웅들은 그
얼마였던가.

노래 『에쁜이』의 구절구절
이 귀전에 펼쳐온다. 고지로 달
갑이 뛰고 나온 원주민들을 모
조리 죽지치 않는다. 저는 장군님
한울을 입고 서슴없이 유태에게나
한데 너명사의 모습이 눈앞에 암
거운다.

조운육영웅, 그는 해방된 조국
땅에 형성이 된 무언인가를 암
이 나라는 평범한 너성이었다.
그의 형국이 너무 소중해 남편이
있는 시대에서 일어나기 못할수
도 있습니다. 제가 만일 돌아가
죽을 말라 하신 어머님의 말
을 듣지 않고 싸우님이다. 어
머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
려운 죽음에서 이 아들이 못할수
도 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 목숨
을 걸고 일어나자고 자랑스
하게 생각해주시오...』

빼도 죄 깊기 전부에 지주놈
의 집에서 절도풀판에서 고
여에 철사풀은 그였다. 나리를
면 그 세월 정든 고향을 떠나 말
은 수모와 천대는 또 얼마나 눈
물겨웠던가.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하고 싶
은 일이 많았지만 손에 총을 잡
았다.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그
것을 지키는 걸이 위대한 수령님
의 온력에 보답하는 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하기에 그는 적회장을 향해
풀을 날리면 최후의 순간에 하
고 싶은 모든 말을 대신하여 이
렇게 북적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안화으로 멋 있는 일터

평안북도먼거리객 자동차사업소를 찾아서

직업과 함께 출발과 도착정형을
보여주는 현시화면이 절쳐졌다.
이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자료기기를 구축하는데 막았던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하
면서 지배인은 우파에게 수업을
포르트그램과 운행현시프로그램
을 통해 일별, 일별로 모든 소
요향과 차들의 상태를 파악적으로
정작한 다음부터는 미유수비
방과 부속포소요향이 풍족에 비
해 훨씬 줄어들었는데 연유만
놓고보아도 해마다 100여 t
이나 차량된다며 이야기했다.

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과학
화실현은 이들에게 경제적 실리
만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역생명, 자급자
족할 수 있는 든든한 밀짚이 마
련된다는 꿈은 과학기술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무관찰에서도 그
아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면
서 지배인은 우파를 사업소지
점에 부상하는 수
정으로 안내했다.

온실안에 들어서니 오
이, 무루를 비롯한 남세
들이 푸르싱성하게 자라
고 있었다.

온실남세재배에 필요
한 온습도보장장형을 실
시간으로 보여주는 축정
장치들과 물보증을 위한



여기서 생산한 남세를 철 따라
구구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공급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우리는 특별하게 꾸려놓
은 껌기양어장에도 놀라보았다.
사업소의 건물과 건물사이에 꽁^꽁
중다리와 같이 건설된 구조물 위
에 껌기양어장과 보조건물의 일
반만 한 면적으로 세워둔에 까
지다 차고고 있었는데 큰 껌기
들이 자라는 곳은 그야말로 물
질방, 고기 절반이다.

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매기양
어에서는 사업장에서

멸의 위훈을 더듬어

김일성장군 만세!

그의 영웅적두정으로 고지는
사수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그
의 배낭속에 정히 보관한 일
당청원서에서 정히 보관한 일
당청원증을 탕증당위원회에 전
하여 주시실 시오. 그리고 그의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진 그날

조운육영웅은 키도 작고 몸무
게도 보자기처럼 일어났다. 그
날은 그 군인선교를 다

위대한 전승사와 더불어 길이 전할 동포애의 전설

예로부터 절정처럼 모든 것에 대해 평화하고 무지막한 것은 없다고 일러왔다.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경단의 써움파당인 경정원에서 평행한 대성들의 운명은 흔히 비평임의 초불파도 같았다.

그러나 지난 조국방위경쟁시기 인류경쟁사가 일어나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꽂혀났으나 남겨져온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에 는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적어주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겸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고 조국을 봉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대영이시며 조국을 봄의 구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리와 민족의 운명을 활동으로 암시하고 기원한 조국방위경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남북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하늘 같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 주시였다.

주제 39(1950년) 6월 27일, 서울 해방 전 후를 앞둔 이 날 서녕 최고사령부 작전대를 마주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실종은 어느 때보다 무거우셨다.

한밤중에 공격을 시작하면 피해를 입게 될 서울시민들이 무엇보다 걱정되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공격에는 줄리미터대로 남북 밖은 차를 작전을 개시할 것을 경시하였다. 그리하여 서울해방작전은 전쟁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투로 위대한 전승시의 한페이지에 새겨지게 되었다.

주제 39(1950년) 7월 4일이었다. 이날 해방된 광화국남부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대안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병이 발표되었다.

제 맘 한판기 없이 피눈물을 뿐더운 남조선 농민들의 그날의 갑작과 화회를 무슨 말로 다 표현 할수 있으려. 남방이라는 곳은 미니미에 환희와 결정이 물결쳤고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소리는 천지를 전진하였다.

당시 가련한 전쟁을 치르는 그 이후한 환경속에서 토지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짓고 보고 싶어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세기적 속망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해 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이다. 결회의 그 날 남부에 거래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이야기에는 『설악산의 결설』도 있다.

주제 39(1950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이 날 조선민들의 맹나무문제 해결을 위해 살았던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식후회를 조직하게 하여 알려주시면서 이런 형편에서 빠져나온 나루를 어떻게 풀었는가 고민하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위가 당장 시작되겠는데 면나무가 없어 땅에 푸른 서울시민들의 직경된다고 근심어린 어조로 표시하였다.

순간 일군의 가슴은 물들었다.

『조국이 존립한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얼룩한 정황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의 겨울나

이에마나무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다니!』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무를 토막내어 강물에 펴워 보내면서 인민들이 겨울을 맞을 수 있을것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 많은 품나무들을

며칠내어 토막차지면 힘 풀었는지

군인들을 동원시켜 주겠다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한강으로는 조개에 블레기

에 알맞은 차운 품나무들을 떠내려오게 되었다. 하여 레바파 겨울이

되면 그것이 없어 고통을 겪던 서울지역의

인민들은 어버이의 어버이의 은혜으로

그려 겨울을 무사히 지낼수 있었다. 이

때부터 『설악산의 결설』은 온 남녘땅에

돌아온다.

가련한 전화의 나날에 풋겨난 이런

사랑의 결설들은 수없이 많다.

결회의 조선속에 수놓아진 이 숭고한

동포애의 서사시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전승사와 더불어 깊이 전해질 것이다.

본사기자

나.

저의 늙은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김일성장군님의 이 은혜를 알았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며 노래처럼

장군님은 익을 청송하고 벼우에 놀이 모실 장군님에게 아침저녁으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천번만 번 절을 하고 또 절을 한들 이 한량없는 은덕에 어찌 다 깊을 수 있겠습니까. …』

남조선인민들에게 대학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비단 농민들에게만 배풀

어진것이 아니었다. 결회의 그 날 남부에 거래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이야기에는 『설악산의 결설』도 있다.

주제 39(1950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이 날 조선민들의 맹나무문제 해결을 위해 살았던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식후회를 조직하게 하여 알려주시면서 이런 형편에서 빠져나온 나루를 어떻

게 풀었으면 좋았는가 고민하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위가 당장 시작되겠는데 면나무가

없어 땅에 푸른 서울시민들의 직경된다고

근심어린 어조로 표시하였다.

순간 일군의 가슴은 물들었다.

『조국이 존립한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얼

룩한 정황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의 겨울나

이에마나무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다니!』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무를 토막내어 강물에 펴워 보내면서 인민들이 겨울을 맞을 수 있을것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 많은 품나무들을

며칠내어 토막차지면 힘 풀었는지

군인들을 동원시켜 주겠다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한강으로는 조개에 블레기

에 알맞은 차운 품나무들을 떠내려오게 되었다. 하여 레바파 겨울이

되면 그것이 없어 고통을 겪던 서울지역의

인민들은 어버이의 어버이의 은혜으로

그려 겨울을 무사히 지낼수 있었다. 이

때부터 『설악산의 결설』은 온 남녘땅에

돌아온다.

가련한 전화의 나날에 풋겨난 이런

사랑의 결설들은 수없이 많다.

결회의 조선속에 수놓아진 이 숭고한

동포애의 서사시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전승사와 더불어 깊이 전해질 것이다.

본사기자

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

핵전보원과 청년당이 12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 설치된 소나무상에서 기자회견을 가지

고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일

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를

제로우며

나무나

나무나</p